

# 전기차 생산공장 짓겠다던 조이롱車 광주와 결별 하나

### 대구 업체와 위탁판매 협약 "담당부서 협약 사실도 몰라" 광주시의회 행정감사서 질타

광주시가 공장 유치에 추진했던 조이롱자동차가 "광주 투자를 철회하고 다른 지역에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최근 현대자동차 합작 광주공장 유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이롱자동차 측도 다른 지역 업체와 위탁판매에 나서는 등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행정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정무장(민중·광산2) 의원은 "2년 넘도록 투자를 추진해온 조이롱이 다른 지역 민간업체와 최근 협약을 맺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사실 파악도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투자 의지가 없는 업체와 안 되는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가능성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투입해 달라"고 지적했다.

최근 조이롱 측이 대구의 한 코스닥 상장사와 전기차 위탁판매 계획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광주시 주무 부서에서 대구 업체와의 협약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반재신(민주·북구1) 의원의 "조이롱 측이 애초 공언했던 공장 설립은 물론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부족해 보인다"면서 "조이롱과의 관계를 청산하든지, 사업 재개를 위한 명확한 투자 의지를 받아내든지 양자택일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에 메인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 업체는 최근 중국 조이롱차와 전기차 위탁 판매협약을 체결했다. 조이롱 측은 애초 202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광주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고 2017년부터 E6 전기차를 2000대씩 생산하겠다고 협약했다.

광주에 직접 생산설비를 갖추겠다던 조이롱 측이 우선 차를 시범 판매해본 뒤 시장성여부에 따라 공장 설립 계획을 세우며 다져 기본 입장을 반복하면서 보조금 심

의 단계에서 투자는 중단된 상태다.

애초 광주시는 조이롱의 미니 전기버스(E6)에 해당 3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대신 조이롱 측이 서비스센터 3곳 설립, 대당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차량 가격 변동이 5% 내외를 넘지 않을 것, 충분한 충전기 인프라 구축 등의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8월 조이롱의 투자 유치가 늦어지면서 '전기차 지방비 보조금 이행 여부 심의'를 광주시가 무기한 연기했다.

정무장 의원은 "사실상 조이롱은 광주에 공장 설립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면서 "무작정 조이롱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이롱 투자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 이상배 전략산업국장은 "최근 중국 조이롱 본사 방문 결과 원론적인 투자의지는 확인했다"며 "조이롱을 둘러싼 모든 사실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시의 입장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월단체, 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행 사과 일제 환영

### 가해자 조사 등 후속조치 촉구

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 계엄군 성폭행 사과문을 발표하자 광주 5월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 가해자 조사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5·18 피해 여성들, 특히 정부 공동조사단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힌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1차적으로 최소한의 위로가 됐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과로 진상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사과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장관이 밝힌 것과 같이 피해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가해 부대와 가해 병사, 지휘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향후 꾸러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성폭행을 사실로 확인한 정부 조사에 이어

국방부장관의 신속한 사과는 용기를 내준 피해 여성들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여성들의 추가 증언이 이어질까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은 "그동안 5·18에서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관심과 조사가 부족했다"며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피해 여성들에 대한 치유와 재발 방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문대통령, 아세안·APEC 기간 푸틴·시진핑·펜스와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와도 정상 회담을 갖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번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러시아·호주 등과 양자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 펜스 부통령과도 면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이 이뤄진다면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데 이

러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을 위해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아세안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도도 밝힐 예정이라고 김 보좌관이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늦가을 서리 속 홀로 피어 더욱 고상하구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244) 국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책에는/그렇게 울었나보다//...//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머 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인제는 돌아와 겨울 앞에 선/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서정주 작 '국화 옆에서' 중에서>

오천만 우리 국민의 애송시가 입가에 맴도는 계절이다. 가을이전 전국이 국향으로 가득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화축제가 도처에서 열리는 시절이기도 하다. 가까이로는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중의공원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화분에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하고 있는데, 정말로 국화꽃을 피우기까지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물주면서 얼마나 공들여야 했는지를 알기에 이 가을 국화가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중국 청나라 시기의 화가 이선(1686-1762)의 '분국(盆菊)'은 드물게 화분에 심은 국화꽃을 그린 그림이다. 문인들이 즐겨 그린 매난국죽(梅蘭菊竹)의 사군자(四君子) 중 하나인 국화는 괴석 사이에서 피어있거나 바위와 풀들을 함께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이 그림은 화분에 국화를 키우는 요즘 사람들의 작품인양 다분히 현대적인 감각이다. 홀로 서지 못하는 대국의 줄기가 넘어지지 않게 받침대를 세워 단단히 고정시키고 줄기를 따로 같이 묶어준 모습을 보니 분방한 필치 속 섬세함이 돋보인다.

사군자가 그림의 소재로 등장한 것은 중국 시문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특히 매난국죽이 갖는 식물적 속성이 학문에서 높은 경지에 이르고 인격적으로 깊은 수양을 쌓아 학문과 덕망이 본보기가 되는 사람인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일치하기 때문에 옛 선비들은 사군자를 칭송하며 읊었다.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 그 가운데 국화는 가을 뒷서리 속에서 더욱 고상한 꽃을 피우며 가을 속 깊이 여서서인지 늦가을 풍경이 더욱 그윽하게 다가온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범사>



이선 작 '분국'

로잡았다. 모든 꽃들이 다되어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절을 침묵으로 견뎌낸 국화와 함께 여서서인지 늦가을 풍경이 더욱 그윽하게 다가온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범사>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E TOUR

광주지사 1688-1104  
광주첨점 062)974-3050

롯데관광 크루즈 전세선 운항 10주년 특별기획!

## 당신의 바다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기업
- ▶ 국내 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 ▶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 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출발 최대 크기 크루즈 11만톤급 세라나호를 만나보세요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승무원: 3,700명 • 승무원: 1,100명

전세선 10주년 조기예약 이벤트

### 선실우선배정 + 최대 30만원 할인

11월 30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단체예약 추가할인	단체예약 최대	3/4인실	성인
8명이상 3만원, 14명이상 5만원, 20명이상 10만원 할인 3/4인실 이용 시 2번째 고객까지만 단체인원 포함	10만원 추가할인!	3/4인실 이용 시 3번째, 4번째 고객 상품가	80만원 소아 30만원!

- 4월 26일 인천항 출발
- 5월 1일, 2일 부산항 출발
- 5월 6일 부산항 출발
- 5월 6일 부산항 출발

#### 한국/중국/일본 전세선 6일

내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 한국/러시아/일본 전세선 5일/6일

내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 한국/러시아/북해도 전세선 7일

내측 198만원부터 발코니 258만원부터  
오션뷰 228만원부터 스위트 338만원부터

#### 2018 인기크루즈 BEST 3

- 베스트셀러 동남아 크루즈 7일**  
1,870,000부터 [+US\$118 선택관광 있음]  
▶ 12/9 ~ 매주 일요일 출발 •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푸켓/싱가포르  
• 90일전 예약시 1인 10만원, 동남아시아 No.1 크루즈 일정  
• 14만 톤급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 탑승
- 조기예약 20만원할인 지중해 크루즈 10/11일**  
299만원부터 [+770/880유로 선택관광 있음]  
서부 지중해 (남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 11/23 2019.1/4 ~ 매주 금 출발  
동부 지중해 (그리스/크로아티아/이탈리아) ▶ 11/16 2019.3/29 ~ 매주 금 출발  
• 유럽 NO.1 코스타 크루즈 탑승, 밀라노 추가 관광 + 일급호텔 숙박
- 내생애 단 한번 세계일주 크루즈 113일**  
3,300만원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2019. 1/7 [단회 출발화점] •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모로코/브라질/칠레/호주 등  
• 크루즈 전문 인쇄사 동행, 9만톤급 코스타 루미노사호 탑승